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9월 13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사무엘상 17장 41-49절

교제목 :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입니다. 블레셋 편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나왔는데, 그를 보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면서 골리앗과 소위 일대일 맞짱을 뜹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삼상17:47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믿음의 고백인데,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가진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너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역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역주권이란 카이퍼가 정의한 대로, ‘내가 서 있는 자리의 주인은 만물을 통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한 평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역주권이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곧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인류는 끊임없이 그 죄성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그 반역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합니다. 반역의 세력은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문화를 강화시켜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대적하고 반역하려는 문화적 현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에 대한 저항입니다. 반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영역주권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의 절대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삶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리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대리통치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상17:45-46을 보면,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삶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대리통치자로 사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목숨, 즉 생존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테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코람테오의 삶을 살면, 성실함과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3-37을 보면, 다윗의 고백은 어떤 삶에 자리에서도, 자신의 맡겨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양을 치더라도 그냥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성실하게 합니다. 신앙의 세속화는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인데, 직장 가서는 아무렇게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어느 부분에서든지 최선을 다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코람테오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코람테오의 사람은 전문적인 사람이 됩니다. 삼상 17:49을 보면, 다윗은 돌리는 물매의 전문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무모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담대함은 맞지만, 결코 무모한 담대함은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물매입니다. 물매는 다윗의 양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물매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그 전문성을 위해서, 물매들을 돌리는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끊임 없이 전문성을 키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축적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물매의 실력자가 아니었다면, 결코 골리앗의 머리를 맞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삼상17:48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가까이 오려는 근접싸움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떨어져서 스피드 싸움을 원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며 지혜입니다. 믿음이란 실력도 있고 전략도 있어야 합니다. 코람테오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필연적인 결과가 전문성입니다. 물매는 실력입니다. 물매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청소의 일을 하더라도, 정말 성실하게 전문가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실제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역주권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테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영역주권이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2) 영역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봅시다.
- 3) 코람테오의 삶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다윗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유사한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함께 구역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